

목포 대양산단 분양 속도 낸다

목포시가 대양 일반산업단지(이하 대양산단) 분양을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는 가운데 산단 분양이 활기를 띠고 있다.

목포시는 민선 6기 출범 초부터 부시장 직속 기구로 산업단지 정책실을 설치한 데 이어 지난해 9월부터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5팀 13명의 '분양 태스크 포스 팀(T/F팀)'을 운영하고 있다.

또 1부서 1기업 유치 T/F팀을 구성해 타깃 기업을 발굴하고, 전문성과 직능별 활동역량을 갖춘 교수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집단 T/F팀'을 구성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

이와 함께 풍부한 행정경험과 인맥을 갖고 있는 공로 연구자와 퇴직 공무원도 기업유치 분양과 홍보에 적극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현재까지 대양산단 분양 실적과 걸림돌은 무엇인지 등을 짚어봤다.

◇가시화되는 대양산단 분양=목포시는 지난 21일 자동차 종합기업 동방투자개발(주)과 대양산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동방투자개발은 대양산단 산업시설용지 A18블록 3필지 4만2933㎡를 114억원에 매입기로 하고 지난 11일 1차로 부지 1만4316㎡를 매입, 9월부터 기초공사에 들어간다. 이 회사는 특장차 제조, 자동차 수리업, 튜닝산업 업종으로 투자규모는 202억원, 고용인원은 350명으로 추산된다.

이날 박홍을 시장은 "대양산단은 지리적으로 전남 서부권 거점 중심지역으로 미래 투자 가치가 확실하며 중국과 최단 거리에 위치해 대중국 교역에 매우 유리하다"면서 "목포시가 보유한 최적의 투자여건을 살려 대양산단 투자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지원과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양산단 분양 실적은 A14블록 프라즈마 발전소, A11-3블록 우리사모 늘어났다. 또 (주)건농, 하나유통 등 13개사는 입주자 유력시 되고 있고, 세이브반도체, 선진수산 등 12개 업체는 분양 상담이 진행 중이다.

동양투자개발과 114억 투자협약 3개사 분양·13개사 입주 유력

업종 변경 전남도 심의통과 과제 TF팀 운영...70개사 유치 목표

■ 대양산단 입주업체 배치도



- 수산식품산업 등(76,929㎡)
- 세라믹산업 등(310,396㎡)
- 태양광·수소전지와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272,637㎡)
- 자동차 제조업 등(60,112㎡)
- 최첨단 해양레저 선박장비산업 조선기자재 부품산업 등(278,936㎡)
- 지원시설용지(65,985㎡)
- 공공시설용지·녹지 등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7일 이재철 부시장, 최창호 대양산단(주)대표이사, 남택준 기업유치협력실장(금융감독원), 관련 부서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양산단 분양전담 태스크포스팀 회의를 2차례 갖고 대양산단 조성 추진현황 및 분양대책, 수요자 맞춤형 분양방안, 기반시설조성사업비 지원방안 등 현안을 집중 토론했다.

특히 시는 산단 조기 분양을 위해 '1부서 1기업 유치 운동'을 전개, 부서별 전방위적 산단 분양 활동을 벌이고 있다.

4국 1적속기관 3사업단 총 43개 부서로 구성된 이들은 1개 기업 이상 유치를 목표로 총 70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산단정책실에 따르면 6월말 현재 기획

관리국 8개, 자치행정복지국 11개, 관공경 제수산국 7개, 도시건설국 30개, 산단정책실 28개 등 총 115개 타깃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투자 정보를 파악하고 기업 현장을 방문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같은 유치 활동에는 공로연구자와 퇴직 공무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분양 걸림돌은 뭔가=적극적인 입주 의사를 표시하는 업체들이 다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입주 업종 변경'이다. 업종 변경이 선행돼야만 이들 기업의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창호 대양산단(주) 대표이사는 "각계 각층의 다양한 노력으로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 시간이 문제이지 분양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어 그는 "업종 변경을 위해서는 환경·교통 영향평가, 에너지, 경관 등 전남도 심의를 다시 거쳐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예정"이라며 "전남도 심의가 통과되면 대양산단 분양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바다가 인접한 A1~A3블록(19만8000㎡)은 수산식품 가공 관련 10여개 업체들이 입주를 적극 희망하고 있지만 업종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물고기 공 수출 전방이 좋아지고 있는데다가 김 생산지가 근거리로 위치하는 등 중구 수출 전진지대로 최적의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 대표는 "이들 업체들이 바닷물을 유입할 수 있는 취수구 설치를 요구해 이를 긍정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A9~A12블록은 화물 터미널과 연계해 서부권 물류시설 집지지로 관련 업종 입주를 모색하고, A6~A8블록은 '네거티브 지역'으로 지정해 특정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변경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결국 대양산단 분양은 목포시와 대양산단(주)의 방직대로 업종 변경만 이뤄진다면 분양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목포=임영준·고규석기자 lyc@

목포 시내버스 25개 노선 중 21개 적자

연간 50억원 마이너스

경영합리화 노력 시급

목포시 시내버스는 총 170대(면허 댓수)가 운행 중이고, 25개 노선 가운데 4개 노선만이 수익을 내고 나머지 21개 노선은 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선별 수익분석에 따르면 황금 노선은 13번, 가장 적자가 많은 노선은 200번으로 조사됐다. 13번 노선의 경우 연간 7억 4519만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200번은 8억 688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13번 노선이 가장 수익을 많이 낸 이유는 7개 학교가 밀집돼 있는 원도심 지역을 경유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른 4개 수익노선의 흑자규모는 14억 5100만원인 반면 21개 적자 노선은 64억 4194만원에 달해, 전체적으로 연간 50억 원대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별로는 태원여객의 연간 적자폭이 21억 8300만원(연간 수익 97억 9765만원, 운송원가 119억 8133만원)에 달했고, 유진운수의 적자폭은 27억 6949만원(연간 수익 99억 337만원, 운송원가 126억 7286만원)으로 집계돼 상대적으로 적자가 더 많았다.

특히 이들 두 개 업체의 2015년 운송수입금 총액은 19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으나 운송 원가는 246억 5400만원



목포시 상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정류장에서 승객들이 버스에 승차하고 있다.

으로 예상돼 올해 수지는 총 49억 53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목포시는 올해 시내버스 재정 보전금으로 51억 2000만원(도비 13억 800만원, 시비 36억 9200만원, 무안군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고 있다.

수익금 감소요인은 인구 감소와 자가용 증가 등의 요인 외에도 시내버스 주 승객 층인 학생 수가 3.47%나 줄어든 것이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연간 50억원 대의 적자 해소를 위해선 시내버스 경영합리화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를 위한 세부개선 방안으로 ▲높은 굴곡도와 장거리 노선 조정 ▲적정한 배차시간 관리 ▲버스 정보 안내체계(통행시간 낭비 감소) ▲운송 수익 투명성 확보(교통카드 사용 장려) ▲정시성 확보 및 서비스 제고 ▲안전교육 및 친절도 향상 교육 ▲외부 광고 사업

등 사업다각화 등이 제시됐다. 이 같은 사실은 목포시가 합리적인 재정지원금 지원을 위해 중앙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2015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요역' 결과에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목포시의회 김귀선 의원은 "시내버스 면허 대수가 170대인데 목포 인구 대비 적정한 대수인지 비슷한 타 지자체와 비교해봐야 한다"며 "현금과 교통카드 사용 비율이 40대 60로 나타나 타 지자체의 경우 현금 비중이 보통 25%인 점을 감안할 때 투명성 확보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영수 의원은 "버스노선 개편 용역시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적자 노선인 신안군·영암군과도 협의를 거쳐 재정 보전금을 받아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시내버스 노선 조정·개편 용역 실시키로

목포시는 시내버스 25개 노선 가운데 21개 노선이 적자로 드러남에 따라 이들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개편하는 용역을 실시키로 했다.

목포시는 "시내버스 노선 체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노선 개편으로 운수업체의 경영개선을 통한 적자 노선 재정지원금을 절감하기 위해 4000만원을 들여 용역을 실시하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교통행정과는 이번 용역을 통해 중부도·우회도·굴곡도·사각지대 등 노선 현황을 분석하고, 무안·영암·신안·해남 등 인근 지역간 대중교통 이용자 분포와 특성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 목포시와 인구·경제 규모가 유사한 타 도시의 시내버스 운행 특성을 비교 검토해 목포시에 적용 가능한 대안을 찾기로 했다.

특히 ▲대중교통 노선별, 승강장별

승·하차 인원과 환승객 비율 ▲대중교통 서비스와 운행상의 문제점 ▲승강장 등 시설상의 문제점 ▲목포시외 의 운행노선 문제점 등을 집중 분석해 기존 노선과 중복되지 않는 노선 신설 및 기존 노선 경로 변경 방안 등을 모색키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노선별 적정 대수, 배차간격, 환승태도 등을 고려한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대상지구·용해지구·육암지구·남양신도시 등 신규 개발지에 대한 신규 노선을 투입하거나 기존 노선을 변경하는 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시 대양동에 조성중인 대양 일반산업단지 조성 현장.

목포에도 '평화의 소녀상'...내년 3월 1일 건립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목포에도 건립된다.

목포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최근 시의회 시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라나는 세대에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정립을 위해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목포 '평화의 소녀상' 건립사업은 1억 원의 건립비용을 모금해 내년 3월 1일 건립을 목표로 추진된다.

건립비용은 발기인 및 추진위원의 부담금과 시민성금 모금, 기금모금 전시회 등 문화행사를 통해 모금한다는 복안이다. 건립 후보지는 현재 삼학도를 비롯해

옛 동양척식회사, 평화광장, 목포역 가운데, 시민여론조사 및 전문가 자문과 목포시 합의를 통해 건립 장소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전성렬 상임위원장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 동양척식의 수탈을 받았던 목포의 과거를 재조명하기 위해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발기인과 추진위원을 지속적으로 영입해 범시민적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금리 부담은 낮게, 대출은 쉽게!

앞으로의 금융

광주문화신협, 북광주신협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 | 담보감정 평가 수수료 면제

아파트 담보대출 (특별금리상함)

최저금리 적용으로
감정가 최고 80% 까지 가능
추가 신용대출 가능

상가 담보대출

빌딩, 단독상가, 아파트상가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로
신용에 따라 상가대출+신용대출 까지~
·대출금리: 특별 우대금리 ·대출한도: 최고 50억

자영업자와 직장인을 위한 신용대출

간단한 대출 절차로
최고 7천만원 까지 가능

정부 보증부 서민대출 햇살론

사업운영자금 최고 2천만원
창업자금 최고 5천만원
생계자금 최고 1천만원

지역업체(무담보/무보증) 승승장구론

개인(창업) · 임대사업장 최대 2천만원
자금대출 · 자가사업장 최대 3천만원
운영자금대출 / 최대 한도 7천만원

아파트 임대보증금대출

전세 보증금
최고 80% 까지 가능

문흥본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블루밍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